

2024 표어

#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속복교회



2024년 10월 27일 청년부 예배

##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나라 거리마다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서리라	Behold
기도		김하진 자매
성경봉독	사도행전 28장 21-31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믿음으로 서리라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오늘 친교는 최동현 목사, 김솔 사모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어제 (10/26)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청장년부 고기파티 잘 마쳤습니다.
  - 권오병 선교사님의 선교보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비치해 두겠습니다.
  - 권오병 선교사님의 부친께서 10월 26일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할렐루야 데이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 새축복 바자회 I
    - 일시: 11월 9일 토요일
    - 도네이션 하고자 원하시는 물품을 교회로 가져와주세요.
    - 바자회를 위한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행사 당일 오전 8시까지 와서 물품을 구분/진열/정리 하실 청년들은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0/27	김하진	예수파셀
11/03	정성원	IE종아셀
11/10	송윤숙	럽셀
11/17	송강현	예수파셀

##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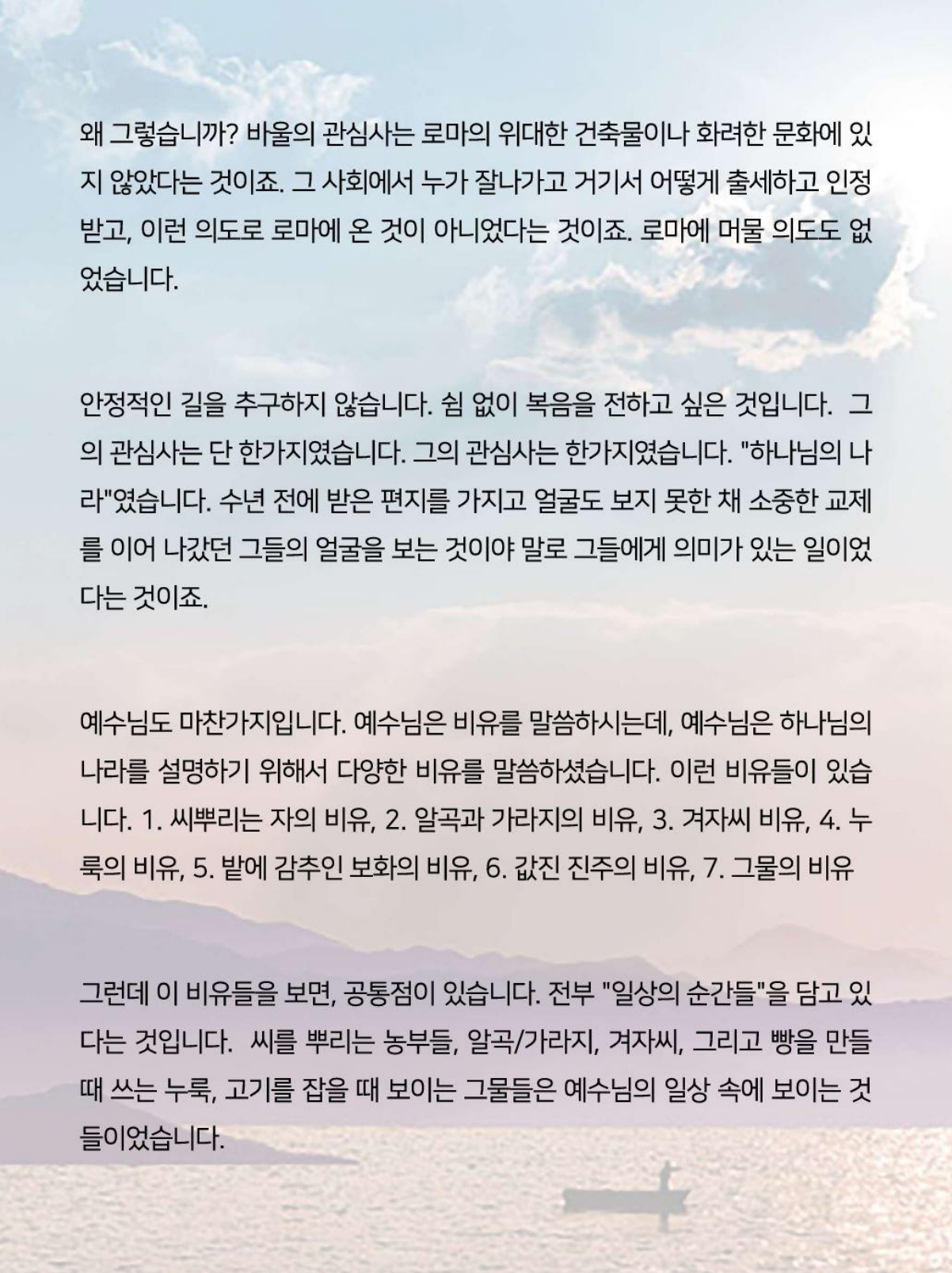
## 20241027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28장 21-31절

###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첫째, “하나님의 나라” 라는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라

로마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놀라운 도시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 곳 저 곳을 여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가 그 곳에서의 경험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소셜 미디어에 올립니다. 그 사진들 자체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도시들을 손에 꼽으면서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가고 싶은 도시 1위가 로마였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가지도 않았던 로마에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에 걸맞는 고속도로, 상수도 시설, 건축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에서 만난 "로마의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건축물들을 보면서 새로운 기분을 얻었고 용기를 받았다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로마의 위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문화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누가 잘나가고 거기서 어떻게 출세하고 인정 받고, 이런 의도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머물 의도도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한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수년 전에 받은 편지를 가지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소중한 교제를 이어 나갔던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야 말로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1. 씨뿌리는 자의 비유, 2.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3. 겨자씨 비유, 4. 누룩의 비유, 5.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6. 값진 진주의 비유, 7. 그물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일상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들, 알곡/가라지, 겨자씨,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쓰는 누룩, 고기를 잡을 때 보이는 그물들은 예수님의 일상 속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그 상황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일상의 모든 순간들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가족반에서 우리가 나누는 "일반계시" 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 나눔 질문

Q. 최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전해주신 사건, 격려해주신 사건, 비전과 깨달음을 주신 사건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둘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셋방에서 열방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불러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서 이미 로마 교회의 이방인 중심의 교인들을 보았고,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로마 교회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지 사흘만에 그들을 초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은 "쇠사슬에 매인" (20절)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위축되는 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위축시키는 점이 그런 점 아닙니까?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세상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가치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는 "셋방"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공간적 한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복음은 셋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 한계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를 찾자면, 당연히 바울의 시대가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상황적 한계가 아닌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스스로 매이는 일이 많습니다. 셋방에서 열방까지 거침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 나눔 질문

Q.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Q.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해 버린 한계의식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나누어 봅시다.

### **셋째,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가 넘어야 할 한가지 한계 상황은 "거절감"입니다. 바울은 온 열정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어쩌면 힘이 빠지고 낙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아마 번아웃 되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은,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자체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다 해도 사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25절). 사람이 흩어진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도 30절에 의하의하면 2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이후의 행적을 담고 있지 않기에, 얼마나 더 바울의 사역이 이어졌는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과연 멈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도 멈추지 않아서 옥중 서신이 우리가 읽는 귀한 성경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 누구라도 언젠가는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 나눔 질문

Q. 복음을 전하며 거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훗날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가 맺힌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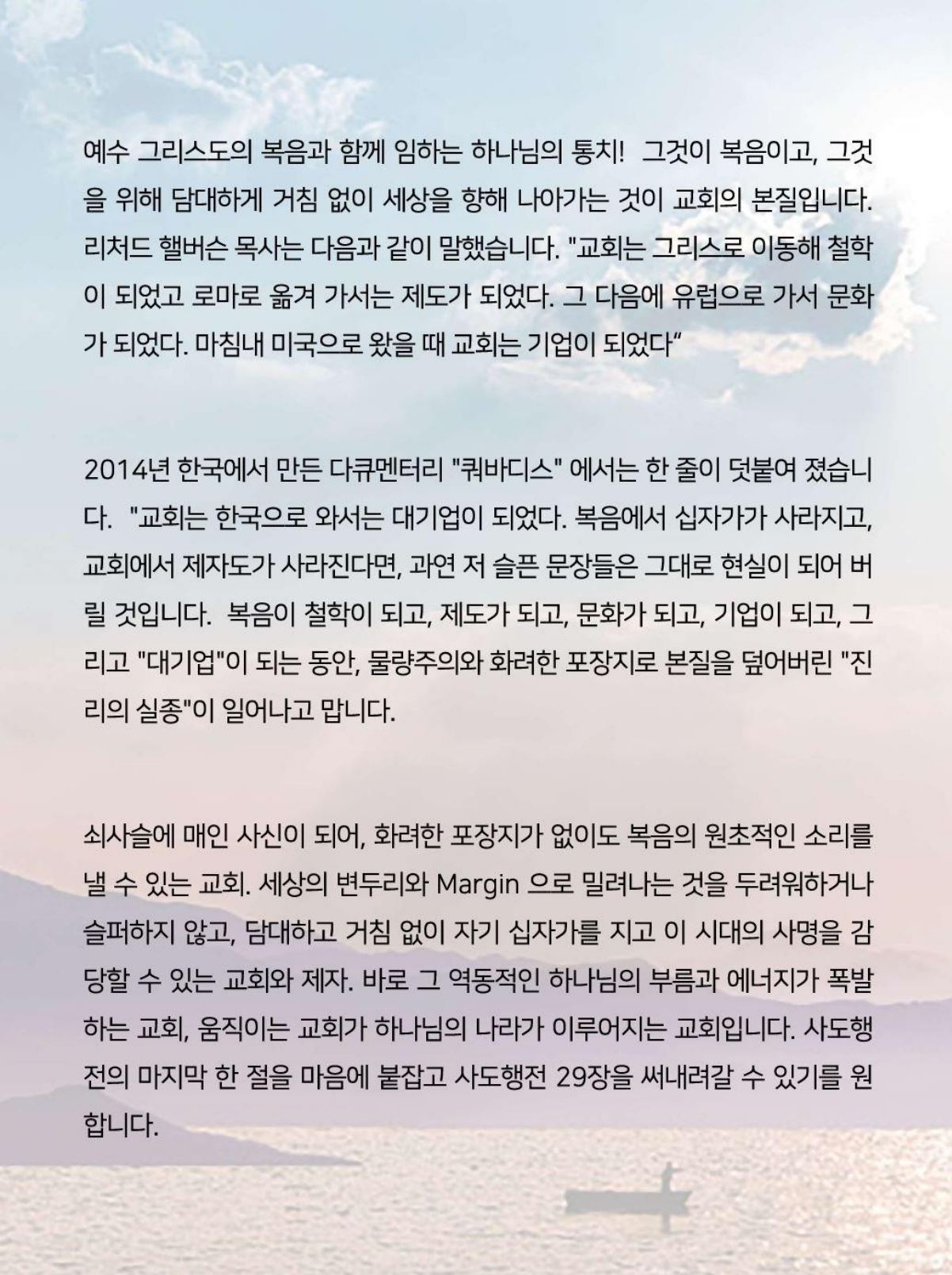
Q.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빚어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기까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배달해준,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나누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넷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단순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행 28: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행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 담대하게 거침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2014년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퀴바디스" 에서는 한 줄이 덧붙여 졌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복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에서 제자도가 사라진다면, 과연 저 슬픈 문장들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복음이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고, 그리고 "대기업"이 되는 동안, 물량주의와 화려한 포장지로 본질을 덮어버린 "진리의 실종"이 일어나고 맙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화려한 포장지가 없이도 복음의 원초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세상의 변두리와 Margin 으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제자. 바로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부름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한 절을 마음에 붙잡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 나눔 질문

Q.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기 위한 듣기 좋은 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채우는 힘이며, 목적이며,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구체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새축복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려 봅시다. 그리고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봅시다.

